

사회

‘오토바이 훔치는 법’ ‘만능키 만드는 법’ 등 게시물 수백건

청소년들 인터넷서 ‘범죄’ 배운다

광주 ‘호기심 범죄’ 잇따라... 포털 규제 강화 시급

광주 A중학교 3년 이모(14)군 등 2명은 최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주택...

광주 B중학교 3년 박모(15)양 등 5명은 최근 서구 풍암동 한 사우나 탈...

오토바이 핸들이 잠금장치가 돼 있었지만, 앞바퀴를 발로 한 차례 꺾어...

우장 잠금장치는 직접 만든 만능열쇠로 풀었다. 열쇠는 인터넷 게시물...

이군은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글을 보고 열쇠를 만들었다”며 “호기심에 열쇠를 한 번 쫓아봤는데, 시동이...

인터넷이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교습소’가 되고 있다. 10일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오토바이 훔치는 법’...

넷 포털 사이트에는 ‘오토바이 훔치는 법’, ‘만능 열쇠 만드는 법’ 등이란...

아이디 ‘kj×××’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아이디 ‘user××’라는 청소년 네티즌은 “만능열쇠로 그냥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많이 따왔다”...

“만능 열쇠는 ○○로 만드는 게 최고다”, ‘오토바이 핸들 잠금장치를 풀려면, ○○○를 발로 차면 된다’라는...

식의 내용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포털 측은 범죄 수법에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자체 검열을 소홀히 하고 있어 추가 범죄 피해를...

광주 북부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수법을 배운 뒤 범행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현섭 뇌물’ 또 3명 구속

도의원 2·시의원 1명... 총 4명으로 늘어

여수시의 야간조명사업 등과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된 오현섭 전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지방의원 등이 4명으로...

여수경찰은 10일 이모(53·여수시의원)·서모(59·전남도의원)·최모(47·전남도의원)씨 등 기초, 광역의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과 5월 초에 오 전 시장의 친척이자 측근인 주모(67·구속)씨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여수시의회 유모(55) 전 의원은 9일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와 김모(53) 시의원, 정모(59) 전남도의원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야간조명사업과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시의원 등 모두 21명을 대상으로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 전 시장이 6·2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주승용 의원 측근에게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이 실제 주 의원에겐 전달됐는지 수사중이다. 또 야간조명사업과 관련, 금품수수와 향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문화거리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 등 오 전 시장 재직시 발주한 대형사업 비리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니원침 (8117) 김장두



영화관·호텔·피시방 등

실내 공기 오염 맨 과태료

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천㎡ 이상), 피시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목포 해상 50대 추락사

9일 밤 10시40분께 목포시 동명동 물양장 인근에서 박모(57)씨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박씨가 숨졌다. 사고 목격자는 “바다쪽에서 갑자기 ‘퐁당’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차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4억 명품녀는 기획된 과장방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불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까지 거론된 이른바 케이비 TV ‘명품녀’사건은 방송사측의 각본에 의해 과장된 허위방송인 것으로 밝혀져 케이블 TV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명품녀 사건은 지난 7일 케이블 방송 ‘Mnet’에 출연한 한 여성이 부모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고 밝혔고, 네티즌들은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지 만큼 불법증여 여부 확인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

○그러나 확인결과 출연여성 김씨는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며 방송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폭로.

/서부취재본부=박희숙·김병관기자 dia@

광주·전남 수능 4만3095명 응시

지난해보다 1929명 늘어

광주·전남지역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4만 3095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만 2859명, 전남은 2만 236명으로...

로 지난해보다 551명 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2000명과 324명으로 각 286명과 55명이 증가했다.

광주는 재학생이 1만 8535명으로 428명 늘고, 졸업생은 3709명으로 538명 증가했으며 검정고시와 기타 응시생은 615명으로 지난해보다 29명이 줄었다. 재학생 비율은 전체 83%로 지난해보다 2% 포인트 감소했다.

영역별로 전체 응시생 가운데 언어영역 2만 2838명(99.9%), 수리영역 2만 2093명(96.6%), 외국어 영역 2만 2831명(99.9%), 탐구영역 2만 2424명(98.1%),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 4410명(19.3%) 등으로 집계됐다. 남학생이 1만 1874명(52%), 여학생이 1만 985명(48%)으로 남학생이 1000명 가량 많다.

전남은 재학생이 1만 7912명으로

광양지역이 올해 새 시험구로 신설돼 목포와 나주 등 모두 7개 지역으로 늘었으며 시험장도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신안을 제외한 2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지역별 응시생은 목포가 4679명, 나주 2364명, 순천 5328명, 여수 3470명, 해남 1338명, 담양 1194명, 광양 1863명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과학축전 ‘진공 속에서 나의 몸은?’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회 광주과학축전’에서 광주 송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진공 속에서 나의 몸은’이라는 과학놀이를 체험해보고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Fun! Together!! 미래의 꿈을 펼치는 광주 과학의 힘!!!’이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12일까지 이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회사 동료와 몸싸움 하던 40대 숨져

회사 동료와 몸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박모(45·광산구 소촌동)씨가 동료 P(45·서구 광천동)씨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는 이날 P씨와 보험 가입 수당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 P씨는 경찰에서 “서로 목살을 잡고 싸우는데, 박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박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P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또 큰비 온다

광주·전남 주말·휴일 최고 150mm

9월 두 번째 주말인 11일과 휴일인 12일 광주·전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과 12일 광주·전남 지역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예상되며,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10일 예보했다. 12일까지 광주·전남 예상 강우량은 60~150mm.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3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내렸던 그쳤다가 반복하며 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3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내렸던 그쳤다가 반복하며 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현기기자 yang@kwangju.co.kr

가로수 20그루 ‘훼손’

광주 양산동 OB맥주 공장 인근

목격자 ‘한 남성 매일 가지 잘라’

광주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 수십 그루가 훼손된 채 발견돼 복구가 조사가 나섰다.

10일 복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양산동 OB맥주 공장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 심어진 지름 15cm·높이 3m~3.5m의 회화나무 20그루의 가지가 누군가가 잘라내 흉물스럽게 됐다. 이틀 회화나무는 2년 전 복구에서 조경수로 심은 것이다. 복구는 훼손된 회화나무 줄기와 가지에서 톱 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고의로 조경수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구는 또 회화나무를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 북부경찰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복구 관계자는 “상가와 주택이 없는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왜 회화나무를 훼손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매일 오후 6시~7시 사이에 한 남성이 회화나무를 부러뜨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훼손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해남 앞바다 화물선 암초 충돌 좌초

추락 선원 1명 구조

10일 오전 6시20분께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서쪽 3km 해상에서 목포선적 19t급 화물선 송림페리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목포 북항을 출발해 신안군 하도도로 향하던 이 선박에는 차량 6대와 선원 등 8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운전 부주의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밤 11시30분께

에는 신안군 입자면 재원도 남쪽 4.6km 해상에서 65t급 예인선 S호의 부선과 19t급 어선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바다에 추락했다가 다른 선박 선원에 의해 구조됐다.

예인선은 선박박복을 입고 전북군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두 선박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숙·김병관기자 dia@

Today's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Jeonnam,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for various regions.

Advertisement for Touch 1 card,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customers and its association with SK cards.